

교회 목표

신성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우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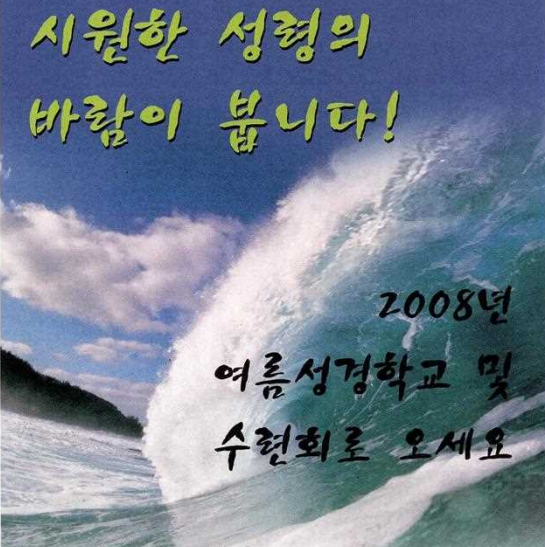
주간 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8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불니다!2008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로 오세요

한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시원한 바람을 일으킬 말씀의 잔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 합 3:2) 특히 이번 주 화요일 (29일)에는 교회학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영아·유아·유치·유년·초등·소년부 성경학교와 중등1·2부(28~29일)·고등부(29~3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루 동안 진행될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각 부서의 선생님들은 주일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나와 비지땀을 흘리며 준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준비한 성경학교이기에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눅 19:10) 세속에 물든 어린이들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해져 교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할 천국일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충현기도원에서 진행될 중등1·2부·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도 학업 스트레스에 갇힌 학생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시원하고 은혜로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기를 위해서 가장 절실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유 :20) 교회와 충현기도원에서 진행될 말씀의 잔치에 회개의 영과 부흥의 영이 가득하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행 2:38) 특히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학업에 치진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계획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일 년에 딱 한 번뿐인 말씀의 잔치를 가장 우선하는 믿음의 선택을 기대합니다.

8월 교회 일정

- 6월(수) 정기당회(수요 2부예배 후)
- 13일(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여전도회, 수요4부예배 후)
- 16일(토) 총력 교회주변 전도(남전도회, 14:00)
- 24일(주) 제4차 역삼 및 세례식(찬양예배 시)

말씀과 삶(금요찬양집회)

9. 내 모습 이대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사랑한다.'라는 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지 않는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알고 있다.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싫어할까?'라는 생각으로 고민하며 죄의식 속에 사는 사람이 많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형상'이 있다. 물론 누구도 이러한 표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이 가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형상이 우리들로 하여금 실패와 좌절을 느끼게 하고 있다. 또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지 않고 비판하고 우리의 실패 때문에 받아주기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마 5:48)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음을 믿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 (막 2:4-6)

우리들은 "믿음으로 의복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롬 5:1) 아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자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 진리를 깨달았고 말할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라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예수님처럼 의롭게 보이고 인정받고 받아들여졌을 것이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모두 예수님께 돌리시고 하나님의 의를 취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고후 5:21) 새로운 의로움은 믿음으로만 받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롬 5:17) 우리에게는 선물을 받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이 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에는 죄를 반복하며 행위를 중시하는 율법주의에 빠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음을 알려주신다. (롬 8:1-2) 그러므로 하나님은 담대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히 4:16) 많은 교회들이 "매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는 말씀을 곁 해하여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죄를 짓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 보좌 밖에서 떠도는 세상의 삶이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은혜가 가장 필요한 때에도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받는 다. (엡 3:12)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당하게 나아갈 수 없다. (갈 3:27)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는 무엇인가? 내가 믿음에서 떠나 결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한 끊임없는 교제를 원하신다. (살전 5:17) 기도도 나아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확인해야 한다. 이 확신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신분이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조진적인 사랑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킨다. 조진적인 관계에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만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엄청난 힘으로 파괴시킨다. 그러나 조건 없이 사랑 받으며 자라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쳐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대한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게 만들고 있다.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에게 용서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사랑의 하나님,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다. 인간이 경험하는 것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힘을 가진 것이 조진적인 사랑과 조건 밑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그 반대로 인간이 경험하는 것 중에서 인간을 살려낼 힘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용납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메시지이다. (갈 2:20) 죄로 물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망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은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에 그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요 6:35)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심을 깨닫는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찾아 헤매던 우리의 방향은 끝난다. 아멘.

GO UP TO BETHEL AND SETTLE THERE

"Then God said to Jacob, 'Arise, go up to Bethel, and live there, and make an altar there to God, who appeared to you when you fled from your brother Esau.' (4)So they gave to Jacob all the foreign gods which they had, and the rings which were in their ears, and Jacob hid them under the oak which was near Shechem. (5)As they journeyed, there was a great terror upon the cities which were around them, and they did not pursue the sons of Jacob.(Genesis 35:1~5)

God knows everything about us! During Jacob's whole life He never forgot him, even though Jacob went his own way many times. Jacob lied, tricked, and did numerous things for his own benefit, but God never forgot him. God continually stayed with him. After he stole Esau's blessing by deceiving his father, he was forced to leave home to escape his brother's wrath. During his flight from home to his Uncle Laban's home God promised Jacob at Bethel, "Behold, I am with you and will keep you wherever you go, and will bring you back to this land; for I will not leave you until I have done what I have promised you." (Gen. 28:15) For twenty years he lived and worked for his Uncle Laban, who took advantage of him and his situation. (Gen. 31:41~42) All through Jacob's difficulties God's hand was with him.

After twenty years of the hard life, God called Jacob to return to Bethel. (Gen. 31:3) Jacob left his uncle's homeland in a cowardly fashion, and when his father-in-law pursued after him God protected him, "It is in my power to do you harm, but the God of your father spoke to me last night, saying, 'Be careful not to speak either good or bad to Jacob.'" (Gen. 31:29) As he approached his home, Jacob became scared of his brother Esau, "Deliver me, I pray, from the hand of my brother, from the hand of Esau; for I fear him, that he will come and attack me and the mothers with the children." (Gen. 32:11) God helped Jacob and took away all his fears. He even changed his name and blessed him, "Your name shall no longer be Jacob, but Israel; for you have striven with God and with men and have prevailed." (Gen. 32:28)

Jacob's faith wavered up and down through most of his life. God solved his twenty years of hard life problem with the answer of returning to Bethel, his hometown. Sadly, Jacob continued looking for his own peace and enjoyment. He persisted on following his way for earthly value, even though God was with him to help him. Instead of settling in Bethel, Jacob tried to live in Shechem, "Now Jacob came safely to the city of Shechem, which is the land of Canaan, when he came from Paddan-aram, and camped before the city. He bought the piece of land where he had pitched his tent from the hand of the sons of Hamor, Shechem's father, for one hundred pieces of money. Then he erected there an altar and called it El-Elohe-Israel," which means a Mighty God is the God of Israel. (Gen. 33:18~20) Like Jacob's faith, we always promise God certain things and then we forget. Jacob's daughter was raped in Shechem, and her brothers took revenge by ruthlessly killing all the males of Shechem. (Gen. 34:25) They deceived the men of Shechem by using the Bible for their own benefit. (Gen. 34:13~18) Their human method of justice placed Jacob in the worst position, "You have brought trouble on me by making me odious among the inhabitants of the land, among the Canaanites and the Perizzites; and my men being few in number, they will gather together against me and attack me and I shall be destroyed, I and my household." (Gen. 34:30) Even so, God did not forget Jacob.

Jacob's worship of God was mostly insincere and he did not practice his faith, but God still loved him. God did not throw him out because God's love is amazing. Who can describe how much God loved Jacob? God is the Father of Abraham, He is the Father of Isaac, and surely is the Father of Jacob. In his darkest hour, God called to Jacob, "Arise, go up to Bethel and

live there, and make an altar there to God, who appeared to you when you fled from your brother Esau." (v. 1) How did Jacob respond to this calling? Without repentance, without dropping his pride, he cannot return. Jacob told his household and all who were with him, "Put away the foreign gods which are among you, and purify yourselves and change your garments; and let us arise and go up to Bethel, and I will make an altar there to God, who answered me in the day of my distress and has been with me wherever I have gone." (vv. 2~3) Jacob totally repented. He finally noticed that God was truly with him all the time.

My dear friend, if you do not truly and wholeheartedly repent then your faith is not real. Both John the Baptist and Jesus preached,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Mt. 3:2, 4:17) There are two worlds, this world that the majority of residents think is the most valuable and makes the most trouble and the real world, the one that God made for you and me because Jesus came to this earth. The real kingdom is at hand because Jesus takes away all our sins. He took the cross and died in order to open heaven's gates for you and me. Without His blood we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God chose Abraham and promised him and his descendants, which includes Isaac, Jacob, and all believers the kingdom of heaven. God showed Abraham, Isaac, and Jacob who He is and He shows us how close His kingdom really is.

When the Holy Spirit came down we finally got a taste of what heaven is like. People all over the world can taste heaven through their faith in Jesus Christ. They can actually feel the heaven of God. As Christians, we can feel the closeness of heaven because of the Holy Spirit reigning in us, and we can even taste in this life what heaven is going to be like. Sadly, too many are more enthusiastic about earthly things than heavenly things. Thankfully, Jesus Christ calls us even when we forget His kingdom and are only searching for earthly things. When we are in trouble He is always there. We need to sincerely appreciate Jesus and thank Him for taking the cross, sending us His Holy Spirit, and showing us the door to heaven.

There is just one condition to enter the gates of heaven and that is that you must be righteous. In order to be righteous we must repent. Jesus asks us to repent! If you hear His voice and only taste heaven but do not go through the door, how stupid are you? Oh dear Holy Spirit, please touch us and make us totally your children. Jacob did not go to Bethel alone, he brought his whole household and all those around him. He threw out all the earthly gods, cleaned his heart, and even changed his clothes. His family went to Bethel and settled there and truly worshipped God, "So they gave to Jacob all the foreign gods which they had and the rings which were in their ears, and Jacob hid them under the oak which was near Shechem. As they journeyed, there was a great terror upon the cities which were around them, and they did not pursue the sons of Jacob." (vv. 4~5) Acts 16:31 says,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Oh Lord Jesus, me and my family and whoever is with me, let us repent and then we can go to heaven together. God commanded Jacob to go up to Bethel and settle there. We, too, can go up to heaven and settle there through faith. Strengthen our faith dear Lord and forgive us our sins. Amen. 🙏

다음 주일 설교

벤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김성완 목사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 ”(4)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창세기 35:1~5)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어떤 자기 고집대로 행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야곱은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였으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잊지 않으셨으며 변함없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에서의 장자권을 훔친 후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은 벤엘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창 28:15) 20년간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그를 위해 일했지만 라반은 야곱이 처한 상황을 이용해 여러 번 그를 속였습니다.(창 31:41~42)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겪는 모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그와 함께 있었습니

하나님은 벤엘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다

고생스러웠던 2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벤엘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 31:3) 야곱은 비겁한 방법으로 삼촌의 고향을 떠났고 이 사실을 안 라반이 야곱을 쫓아오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창 31:29) 야곱은 고향이 가까워지자 형 에서를 인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창 32:11) 하나님은 야곱을 도우셨고 그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벨주교라 축복하시며 해주셨습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창 32:28)

야곱의 믿음은 항상 흔들렸다

야곱의 믿음은 그의 일생 동안 물결처럼 오르내리며 흔들리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도 고향 벤엘로 돌아가라고 응답하시며 20년 동안의 고달픈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곱은 계속해서 자신의 평안과 안락함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기 위해 그의 곁에 계시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자신의 길을 고수했습니다. 벤엘에 정착하는 대신 야곱은 세겜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밤을 세겜의 아버지 하들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키타에 값으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창 33:18~20) 야곱의 믿음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어떤 것을 약속하고 나서는 공상 있어버립니다. 야곱의 딸이 세겜에서 치욕을 당하자 그녀의 오빠들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임으로 원수를 갚았습니다.(창 34:25)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경을 이용해서 세겜의 남자들을 속였습니다.(창 34:13~18) 정의를 실현하려는 그들의 인내적인 방법은 야곱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족이므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창 34:30)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야곱의 태도는 진실하지 않았고 그는 믿음을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놀라우신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무슨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뿐 아니라 분명히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이 약속의 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

라”(1절) 야곱은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회개 없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2~3절) 야곱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신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참 믿음은 십자가를 통한 회개에 기초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진리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3:2, 4:17) 우리는 두 세대를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환난으로 가득한 세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허락하신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심으로 실재하는 천국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아나라 천국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포함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참으로 그의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믿음은 신자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성령께서 오셨을 때 마침내 우리는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맛보게 됩니다.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장차 올 천국이 어떠한지 미리 맛보는 특권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슬픈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진보다 이 땅의 것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의 나라를 잊어버린 채 세상의 것들만 찾고 있을 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진실으로 예수님께 감사드리야 합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며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마음에서 우리나를 참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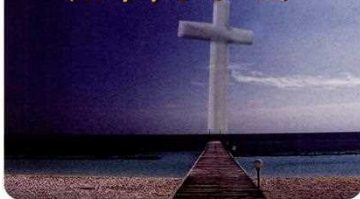
회개만이 살 길이다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워지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의 맛짓 보았는데 그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주소서,” 야곱은 온종일 벤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모든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까지 갈아입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벤엘로 올라갔고 거기에 머물면서 진실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4~5절) 사도행전 16:31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 주 예수님,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나와 함께 한 모든 자들이 회개하여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벤엘로 올라가 그곳에 정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천국에 올라가 그곳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8. 7. 23.)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로마서 8:5~11)



인간은 항상 생각하며 산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다. 예수님을 믿어 교회에 다니고 많은 교회활동을 하지만 여전히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은 없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른다. (롬 7:25) 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롬 8:1~2)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롬 8:3~4)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생각이나, 생명과 평안으로 풍성한 영의 생각이다. (롬 8:5~6)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노력만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다. (롬 8:7~11)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인가? 아니면 영의 생각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다르게 만들 것이다.

육신의 삶은 끊임없는 분쟁이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삶으로 이끈다. 결국 '자신'이 살아있는 육신의 삶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롬 7:22~23) 죄의 법에 사로잡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행방한다. (갈 5:17) 아브라함이 가졌던 영의 생각은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었다. (창 21:12) 육신의 삶은 끊임없는 분쟁만 가져온다.

영적인 삶은 평화 속에 거하게 하신다 영의 생각은 평화로운 삶으로 이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삶에는 평화가 있다. (롬 8:1~6) 이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요 14:27)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이 평화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빌 4:7) 어떤 환경에 처해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신다.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 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 예수님을 믿으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롬 5:1) 영적인 삶에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친다.

육신의 삶은 계속적인 방어의 삶이다 육신의 생각은 계속적인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달프다. (롬 7:15,19) 인간은 사치적 동물이다. 항상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꿈꾼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항상 그 속에는 투쟁이 있다. 올바른 삶, 인정받는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방어해야만 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진저리내' (롬 7:24) 육신의 삶은 계속되는 분쟁으로 인하여 방어를 해야만 할 수 있다.

영적인 삶은 승리 속에 거하게 한다 영의 생각은 승리의 삶을 살게 한다. 영적인 삶을 지배하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롬 8:2,37) 이 승리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고전 15:57)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전하는 향기이어야 한다. (고후 2:14) 참된 승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만이 경험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9:8) 영적인 삶에는 승리뿐이다.

육신의 삶은 어린 아기의 삶과 같다 육신의 생각은 어린 아기와 같은 삶을 살게 한다. '형제들이 내가 선행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찾기로 막히니 밋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전 3:1~2)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 아기와 같은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의의 법칙을 깨닫지 못한다. (히 15:2~4) 죄인임을 거부하며 인격자가 되려고 한다. 육신의 삶은 사는 사람은 상상이 많은 어린 아기이다.

영적인 삶은 항상 자란다 영의 생각은 가장 아름다운 항상 성장한다. (고후 3:18) 화려한 세상에 매혹당하지 않는다. 두루한 말구유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을 발견한다. 겐세마 대동산과 골고단덕에서 십자가의 무한한 영광을 깨닫는다. 자신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하시기에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의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갈 2:20)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로 가득하다. (요 15:5,8)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뿐이다. (갈 5:22~23) 영적인 삶에는 열매로 가득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생각하거니와, 분쟁 아니면 평화인가? 방어 아니면 승리인가? 어린 아기 아니면 성장하는가? 우리의 생각과 삶은 어떠한가?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영적인 삶은 자신의 것을 완전히 포기한 영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영의 생각이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삶을 살자.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삶이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찬 374장) 아멘.

마가복음 강해 33

* 매우 중요새키기도(새책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의 처형이 십자가를 예시한다(6:14~29)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다. (사 40:3 : 말 4:5 : 막 1:3~5)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이 무덤속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되었다. (막 1:14) 세례 요한의 사역은 철저히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준비에 집중되어 있었다. (막 1:2) 세례 요한은 당시 타락한 종교지도자들을 향해 회개와 복음의 준비에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였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 강으로 나와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으며 예수님도 이곳에서 메시아로서의 위임식을 하였다. (막 1:10~11) 또한 세례 요한은 당시 근심산간의 죄를 범했던 헤롯의 죄(레 18:16~17)를 정면으로 지적하였고 이로 인하여 목숨을 죽였다. (마 14:6~7) 헤롯에게 해서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

헤롯은 매우 탐욕적인 정치가였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안티파스)은 갈릴리와 배와야를 통치했고, 세례 요한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로 책망하자 욕에 가득했고, 세례 요한을 죽였다. 예수님이 그대 대해 '여유' (눅 13:32)라고 묘사할 정도로 교만한 분봉왕이었다. 예뻐있었던 헤롯은 유대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하였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죄로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였으며 보호하려고 하기까지 했다. 또한 그의 맘을 들을 때는 크게 반민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막 6:20)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전해들은 헤롯은 요한이 부활했다고 믿을 정도였다. (막 6:14,16) 그럼에도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다. 마치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열렬히 기다렸던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듯이 말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막 9:13)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고난을 당하였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도 항상 외로웠다. 무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의 곁에는 까마귀뿐이었다. 그를

열렬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천히선다(마 23:23) 그러나 세례 요한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한 종이었지만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뒤로 한 채 오셨건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물론 성령의 진리 앞에 고집도 드로 드로 믿으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선택은 '주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다. 헤롯처럼 말이다. 헤롯은 성경을 알고 부활까지 믿고 있었다. 아마도 오늘을 사는 그 어느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나은 신앙의 소유자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헤롯은 비교적 관용은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으로 그에게는 회개가 없었다.

헤롯이 내직 번민 가운데 세례 요한을 죽였듯이 우리도 술한 번민 가운데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또 다시 못질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그의 처형이 우리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지냈다. (막 6:29) 반면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장사지낸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도마가 아니었다. 한 때 예수님의 집사를 들었던 니고데모와 니라마도 요새하였다. (막 15:43,44)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저 맑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안다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전신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막 8:38) 지금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삶의 중심에 '자신과 세상'이 있다면 우리는 외식자이다. 외식적인 헤롯처럼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따라서 매순간 우리 삶에는 회개가 필요하다. 세례 요한의 처형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 우리가 지닌다 지리에는 오직 보혈의 축복만이 있어야 한다. "네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결을씩 늘 인도하소서"(찬 379장) 아멘.

힘을 주시는 전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교회 주변으로 전도를 나갈 때 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전도하러 가는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다. 같이 전도하러 가는 분들이 '이런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않음까지' 부끄러웠고, 믿을 없는 나의 외식에 전도를 나가기 며칠 전부터 마음이 심란해졌다. 물론 전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만나 담대히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이 마음이 전도현장에서는 연결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전도를 나가기 앞서 나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렸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 것을 부당스러워하는 저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매달렸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달라고 하기에 앞서 내 무거운 짐을 하나 하나 내려놓았다. 간구하는 나의 눈에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날 전도현장에서 나는 정말 담대해져 있었다. 가장짐 초인종을 누르는 것조차 부당스러워 하였던건 나 날은 기쁜 마음으로 담대히 초인종을 눌렀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문을 열어 주었다. 아이는 아바나 교회를 안 다닌다고 했다. (주간총회)와 전도지를 아이에게 주면서 아바나에 꼭 읽어 보시라고 당부하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했다. 전도하는 내내 나의 마음은 잔잔한 안개가 포근하게 감싸주는 듯했고, 나의 걸음은 씩씩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하게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전도를 힘써왔던 나에게 기쁨으로 전도할 마음과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김진갑(감사, 9교구)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나에게도 주소서. 물속에 빠지는 자에게 생명을 던지리라.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하던 중 몸이 갑자기 더 아파왔다. 급히 검사를 받으며 몸이 갈등을 느꼈다. 자녀들도, 남편도, 의사도, 친구도 말했지만 성경판의 일함상에 순종하기로 했다. 걱정하는 자녀들을 달래며 악을 준비하면서 선교를 떠날 날을 기다렸다. 공항에 도착해서 다시 한 번 기도했다. 어쩌면 무모하기도 한 내가 한 번 죽는 것을 잘하라고 내가 전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현지로 떠났다.

첫날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둘째날인 주일 새벽에 사탄은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난 아무도 없는 방에 엎드려 기도했다. "주님! 왜 저를 여기까지 보내셨나요? 틈에 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사히 선교를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침 경건 후 통성기도를 부탁드렸다.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지나갔고, 전도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음을 두세 번 반복하여 그들에게 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나의 모습에 스스로 놀랐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제 작은 일에 더욱 충성하여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종이 되길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김금순(전사, 24교구 7지역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5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28일(월)-8월 2일(토)	청년1부 3팀	함학자
7월 28일(월)-8월 5일(화)	총현목지관 1팀	최성기
7월 28일(월)-8월 5일(화)	10교구 7지역	정문호
7월 28일(월)-8월 6일(수)	13교구 4지역	김철남
7월 28일(월)-8월 5일(화)	14교구 3지역	서영환
7월 28일(월)-8월 5일(화)	17교구 1지역	이선홍
7월 28일(월)-8월 5일(화)	21교구 6지역	유병수
7월 28일(월)-8월 5일(화)	22교구 2지역	헌준봉
7월 28일(월)-8월 4일(월)	24교구 8지역	이민원
7월 29일(화)-8월 5일(화)	3교구 3지역	김 광
7월 29일(화)-8월 6일(수)	10교구 4지역	이창희
7월 29일(화)-8월 5일(화)	20교구 2지역	강민수
7월 30일(수)-8월 6일(수)	10교구 6지역	최영인
7월 31일(목)-8월 7일(목)	5교구 9지역	김영주
7월 31일(목)-8월 8일(금)	6교구 6지역	김현철
7월 31일(목)-8월 8일(금)	7교구 1지역	박용기
7월 31일(목)-8월 8일(금)	8교구 4지역	이경환
7월 31일(목)-8월 8일(금)	18교구 6지역	김성현
8월 1일(금)-8월 8일(금)	7교구 4지역	박석산
8월 1일(금)-8월 8일(금)	8교구 3지역	최동성
8월 1일(금)-8월 9일(토)	8교구 5지역	윤병식
8월 1일(금)-8월 9일(토)	11교구 6지역	김동희
8월 1일(금)-8월 8일(금)	16교구 4지역	김봉화
8월 1일(금)-8월 8일(금)	17교구 3지역	최경화
8월 1일(금)-8월 9일(토)	17교구 5지역	남준호

주의 은혜와 보혈로 은총이 넘치는 대학부



김대식(장로, 대학부장)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대학부는 앞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세대와 교회를 이끌고 갈 일꾼인 동시에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아갈 증인들이자 내 세상의 유혹과 시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열려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의지하는 십자가의 정병들이 되도록 말씀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학부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로 2:2), 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히 13:8)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매회와 예배, 조별성경공부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갈 2:20)이 되도록 기도하며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학부는 고등학교를 졸업(89년생)하고 만 22세(86년생)에 달한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고, 군복무와 학업 등으로 현역을 초과한 학생들도 간혹 있습니다. 새가족팀을 포함하여 16개팀 62개 조로, 학생 재직인원은 380여 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팀장과 조장, 학원책임원, 동기장 및 소그룹장들이 열심히 조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매주 토요일 제2교육관 4층에서 오후 1시 45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하여 조별성경공부가 종료되는 5시 30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리니'를 통하여 군에 가 있는 약 70여 명의 지체들에게 월 1회 교회의 소식을 담은 유인물을 보내어 소감을 느끼기 않도록 양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물베개'와 '봉공방'을 통하여 매주 필요한 자에게 어려운 환경의 어린 생명들을 방문하여 가르치면서 십자가의 복음도 병행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NMC'(병원전도팀)를 통하여 매주 화요일 저녁 국립의료원을 방문하여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찬양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학부의 지체들 중 85% 이상이 매주일 각 부서에서 봉사하며 전국일꾼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여러 사정상 토요집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대상으로 주일3부예배 또는 5부예배를 마친 후에 대학부 교사에서 지도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영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유학중인 학생들이 그곳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미미영을 통하여 매주일 위임목사님의 영문설교를 보내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찬양회 후 제1교육관 207호에서 대학부와 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충령의 끝이아들에게 세계 선교의 소망을 심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듯 아현장장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 지체들을 위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근심하며 떠났던 부자 청년(마 19:22)이 아닌,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께 나아오는 젊은 이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천년일이 주께 나오노라"(시 110:3) 아멘.

현제 사역 중인 선교팀 (13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21일(월)-7월 29일(일)	1교구 2지역	윤선천
7월 21일(월)-7월 29일(일)	2교구 4지역	홍순진
7월 21일(월)-7월 29일(일)	10교구 2지역	정철식
7월 21일(월)-7월 30일(수)	18교구 3지역	윤해근
7월 21일(월)-7월 29일(일)	21교구 4지역	박영민
7월 22일(화)-7월 29일(일)	4교구 5지역	박봉수
7월 22일(화)-7월 29일(일)	6교구 1지역	박광식
7월 22일(화)-7월 29일(일)	12교구 2지역	김명성
7월 22일(화)-7월 29일(일)	20교구 4지역	강석화
7월 23일(수)-7월 30일(수)	9교구 6지역	조영구
7월 23일(수)-7월 30일(수)	10교구 5지역	김종성
7월 23일(수)-7월 30일(수)	15교구 2지역	이병근
7월 26일(토)-8월 2일(토)	22교구 추가	김종녀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5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15일(화)-7월 23일(수)	7교구 2지역	최태환
7월 15일(화)-7월 23일(수)	19교구 1지역	박태재
7월 17일(목)-7월 24일(목)	24교구 6지역	임광신
7월 17일(목)-7월 24일(목)	24교구 9지역	박재현
7월 18일(금)-7월 26일(토)	13교구 7지역	이상배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날까지

몇 년 전부터 건강화를 앓다가 지난 6월 19일,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아침 7시 30분에 시작해서 그날 밤 11시가 넘어 끝난 대수술이었다. 수술 다음 날 저녁 때에야 나는 깨어났고, 인공호흡기를 떼며 이삼 일 동안 몽롱한 상태를 거친 후 산소 마스크에 의지하며 오늘날까지 하루하루를 건강회복에 힘쓰고 있다. 지금 나의 눈은 훔칠 상태이고, 침대에 누워 겨우 조금씩 움직이기 편을 잡을 힘조차 없지만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싶다.

수술실에서 마취 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소서. 다시 살려주시면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술 후 찾아온 심한 통증으로 매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각종 힘든 검사들은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던 고백 대신 “주님, 포기하고 싶습니다.”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십자가의 크신 사랑이 정말 예수님이시기에 가능했구나!”라는 감사를 주셨다. 현실적으로 다쳐 보지 않은 상황에서 말로만 내뱉던 고백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였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또 당연히 그래야 하기에 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셨을 예수님을 생각하니 눈물만이 흐를 뿐이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만이 나왔고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고난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수술 후 회복상태가 좋다고 했을 때 난 내 의지대로 빨리 나아보려고 운운해 주려하였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고백했으나 또 나의 자아가 앞서 버렸다. 또 수술 전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때 의료진들에게 존치를 줘야 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세상의 방법에 의지해 버리기도 했었다. 이처럼 영적 싸움은 매순간 나에게 다가오기에 오직 함께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는다.

나에게 간의 일부를 떼어 주었던 아내도 이제 건강이 회복되었고, 이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정기를 아내와 공유하였기에 앞으로 합심하여 주님의 일에 앞장설 것이다. 교회 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를 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 함께 있는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다 감사하다. 비통사무 중에 들려주시던 “일평생 주만 바라만 언제나 힘주시고 지켜주시라…….”란 찬양을 통해 평안함을 주시고, 믿지 않은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마음을 열어 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감사의 내용이 너무 많으나 나의 생각이 짧아 안타까울 뿐이다.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많은 출혈로 수술을 받고 있지만 마음에 평안이 넘친다. 이는 나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주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이재관(집사, 1교구)

권중욱(목사, 장년1부)

교만과 이기심으로 버리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 외에 다른 더 큰 삶이 있으리라라는 의심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몸 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로대로 처연하게 살아오면서, 나의 몸과 마음은 모두 갈기갈기 찢어지고 죽어갔습니다. 막다른 길에 도달해서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 막막했던 나에게 주님께서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큰 충격은 곧 ‘경의함’과 ‘감사’의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죽어가던 저의 세포 하나하나에 무조건적인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영접한 지 3개월 남짓한 저에게 일어난 일생일대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얼마나 죄의 구렁텅이에서 살아왔으며, 그 죄도 모른 채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길임을 모르고 여기저기서 부당하고 아파하며 혼자서 안간힘을 쓰며 자기만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던 날들을 되돌아볼 때, 지금의 나의 모습과 생각은 정말 딴 세계를 살고 있는 자신임을 발견합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부모님 말고는 이 세상에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며, 그런 사실에 너무 외로웠지만, 하나님의 깊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로 충만해졌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을 갈구하는 마음과 믿음이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은혜를 체험할수록 더욱더 된 나를 보게 하시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작년 11월부터 장년1부 신임반 교사를 맡게 된 뒤 개인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주님을 붙들게 하였고, 오직 그 위로하심만이 진정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 것에는 기대할 것이 없으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새벽 2시반 매일 주님을 만나게 하였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판단자 되시며 심판자 되시며 사랑을 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평안으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굳게 다짐해 봅니다.

매주 장년1부 교사기도와 집회를 통해 또 성경암송대회와 찬양대회를 통해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요 1:19)이라고, 나를 근심하게 하는 나의 문제가 주님 때문인가, 세상 때문인가, 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보시며 세상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문제 될 게 없어요. 분명 세상적인 문제예요. 장차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고 사는데 그런 것들이 왜 그리 큰 문제가 되었는지! 알기만 하고 믿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집회 후의 밤 모임에서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자 서로 간증하였습니다. 돌아보건데 편안한 삶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찾을 리가 없었고, 정말 끈고하고 힘 들며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전에는 못보지 못했던 하늘나라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고난은 정말로 은혜였습니다. 나의 초점이 오직 예수님만 향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평안과 은혜와 용서가 있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주님은 아무도 관심 없는 말구유에서 나시고, 또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순종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맞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합니다. 예수님,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그래도 내가 믿음은 조금 더 잘랐다고 남을 정죄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담의 나의 땅속에서 살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놀라운 생명의 길과 세상의 길 앞에서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게 하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심판 주 되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든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조금씩 쌓이는 동안에 나는 기쁨대신 고뇌와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세계로 가는 길이 고통과 내내의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삶이나 찬송을 통해서 접했던 ‘십자가의 보혈’이란 말씀이 웬지 낯설게만 느껴졌던 초신자인 나……. 이런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접하면서 감히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몸 붙고 있는 우리 이기에 지금 이 시간도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에 빠져,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기적이고 교만한가만 한 우리……. 매일 회개를 하면서도 때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닌 이기적인 마음을 숨기고 하는 회개에 만족함을 느끼는 우리…….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모자람까지도 사랑하시며, 세상의 유혹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저를 너무나 가슴 아프게 지켜보시며,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사심……. “주님! 당신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제 안에 있는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덮여 있는 허물들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에 경의함과 감사함과 사랑의 마음을 채워가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의 세계로 가기를 열망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감히 고백합니다, 사합니다.”

김소훈(성도, 새기침 양육부)

충현기도원 숙박시설 이용안내

충현기도원(경기도 광주 소재)이 성도님들의 영적 휴식처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최근 숙박시설(다니엘·예수터) 공사를 끝낸 충현기도원은 더욱 편안해졌으며 아늑해졌습니다. 순란한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새롭게 거듭난 충현기도원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데 편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2·3·5·7·9인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대식 시스템으로 보강된 각 방의 샤워실 및 편의 시설 등과 방난방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이용료가 부과되오니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충현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적절한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충현기도원 ☎ 031-766-5425에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 4:7) 지금은 기도를 맏입니다. 충현기도원은 충현교회 성도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새로워진 충현기도원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천국일꾼으로 양성된다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보다는 학비를 지원해 주는 교회에 감사한 맘으로 교회 일에 열심을 내던 자였다. 충현교회로 옮긴 이후, 위임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듭나지 않는 무덤덤한 종교인의 모습인 죄인 된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금요찬양집회에서 신유의 찬송을 할 때면 혈루병 여인과 같이 적은 믿음의 손을 내밀며 늘 '나의 영적인 메마름'을 놓고 고쳐주심을 기도했다.

그런 가운데 예배 전 찬양을 준비하게 되었다. 찬양을 드리기 전엔 늘 목소리와 많은 가사에 신경을 쓰며 지냈는데, 찬양을 드린 그 날만은 그럴 수가 없었다. 전 날 어떤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아 내 맘을 담아 버린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소리 내어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작은 감정의 문제였는데……. 더욱이 마태복음 5장 23~24절 말씀을 내 마음에서 계속 생각하며 그동안 찬양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가졌던 마음과는 다른 내 모습을 보며 찬양에 합당하지 못한 내 모습에 갑갑했다. 연습실에 앉아 그냥 기도하다가 예배 전 찬양에 임하였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을 찬송하며 이런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손을 내밀었다. 세 번째 찬양으로 준비했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란 찬양을 부르는데 내 맘 한 곳에서 누군가 자꾸 날 정죄하기 시작했다. ‘변했다며,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라고 자꾸 나를 질책하며 내가 가짜라고 하였다. 찬양은 큰 소리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하며 새사람 되고 싶었지만, 실상 내 맘은 그렇지 못했다. “이런 내 안의 갈등을 아무도 몰랐으리라.” 내 속에서 절망을 느끼며 마지막 곡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부르던 중 어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사랑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찬양은 중간중간 끊기었다. 찬양을 마치고 열문으로 나가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되돌아보니 너무 부끄럽고 두려웠다. 다시 찬양대석으로 올라갈 용기가 없었다. 순간 ‘이제 그런 찬양해야 하나 보다.’ 하며 주저하고 있었지만, 다시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마음을 다잡고 예배에 임하였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물 떠온 하인만 알더라는 말씀을 읽으며 부추하고 한없이 연약한 나에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었다. 이런 예수님으로 인해 분명 내 안에 귀족함의 감격과 감사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나, 오늘도 여전히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늘 나의 결심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지만, 오늘도 선한식 목사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 (무명의 성도)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여름성경학교

“현구를 통해 통해 피는 아침에…….” 하며 어릴 적 여름 성경학교 때 부르던 주재찬송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때 들었던 곡은 나의 기억에 남아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찾아오는 여름성경학교를 참 소망이 가득했었는데 어린 학생이 아닌 교사로서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은 그 어린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어린 시절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함께 복음을 들으며 찬양하며 여름성경학교를 참여할 것을 생각하니 주님이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되며 더욱 기도하며 준비해야겠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함 3:2)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열정준비와 찬양연습, 각 프로그램마다 맡겨진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기도회로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보며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들이 기대되고 설렌다.

나는 이번 성경학교에서 초청장 만들기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고 참된 교회로 주님에게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고 회복된 교회를 통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초청장을 아이들이 직접 만든다. 아이들 스스로 정성껏 복음을 전하기 위해 초청장을 만드는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고 우리 초등부를 더욱 회복시키고 영적 부흥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해본다. 많은 아이들이 여름성경학교에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와 주님이 세워 가실 참된 교회의 회복과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다.

김지영(교사, 초등부)

♡ 새 가 곡 을 완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553	우은정	21	청년1부	정승진(22)
1554	윤양희	5	청년2부	한지옥(5)
1555	정미랑	11	청년2부	김소옥(16)
1556	김희진	8	대학부	송현진(7)
1557	송인석	23	장년3부	송은희(1)
1558	김효미	11	청년2부	김기홍(20)
1559	손민아	25	외신부	유유주(9)
1560	김은희	11	유년부	김민정(1)
1561	심경순	4	장년2부	최우근(14)
1562	박명숙	5	장년2부	정재선(5)
1563	김동희	9	청년2부	전옥순(1)
1564	김진솔	11	중동3부	강미경(11)
1565	박성준	15	청년2부	홍현숙(8)
1566	김영자	4	장년2부	김유환(4)
1567	최천규	11	장년3부	최진정(11)
1568	전영은	11	장년3부	최진정(11)
1569	방금자	14	장년2부	주영선(14)
1570	박현애	12	청년1부	이재림(12)
1571	안서연	6	장년1부	이연희(5)
1572	김광일	1	청년1부	한예림(20)

* 충현교회의 한 가곡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곡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모임

- 1. 남·녀 전도회 회향 릴레이
일시: 27일(오늘) 15:10
장소: 1지회-408호 · 2지회-405호
3지회-409호 · 4지회-410호

별세

- 1. 노준경 은퇴권사(전태호 은퇴권사의 부인, 19교구 부원(6구역) / 17일 별세, 19일 장례
- 2. 성회급 성도(김군자 권사의 모친, 조동성 집사의 장모, 6교구 가락시 영구역) / 21일 별세, 23일 장례
- 3. 류현장 타교집사(김은국 성도의 시부, 7교구 오금구역) / 21일 별세, 23일 장례

*충현기도원 화요일회(29일)는 수련회 관례로 없애진다.

2008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름을 주사시(창 3:2)

부서	일시	장소
영아부	7.29(화)	영아부실
유아부	7.29(화)	유아부실
유치부	7.29(화)	유치부실
유년부	7.29(화)	유년부실
초등부	7.29(화)	초등부실
중등1부	7.28(월)~29(화)	충현기도원
중등2부	7.28(월)~29(화)	충현기도원
고등부	7.29(화)~31(목)	충현기도원

◆수요2부예배 자막 봉사자 모집

- 1. 봉사시간: 매주 수요2부예배 (19:30~20:30)
- 2. 문의 및 신청: 에바리대실 (지리교육관 1층, ☎ 416)

◆음력십이재와 봉사자 모집

- 1. 자격: 본교의 세례교인으로 책임감 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초보자 환영)
- 2. 문의: 음영실 ☎ 224

8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예배 (점례)					찬양예배 (원집사)	수요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8	3	임무천	박용규	김철환	장철환B	김영은	유재훈	박준옥	백정숙
	10	김환기	임장식	김구형	이태식	배철수	장병준	변경희	김경화
	17	전은애	이훈	김민태	박상대	이철호	윤병식	박승준	문현옥
	24	안석현	석영익	김종홍	이달용	최희준	함철주	김연향	김형미
	31	안동현	유상대	구재환	이상식	장승규	송영준	김학선	전은실

새벽기도회 (7/28-8/3)

	7/28 (월)	7/29 (화)	7/30 (수)	7/31 (목)	8/1 (금)	8/2 (토)	8/3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임복실	김익환/이양호	장 훈/김영목	이희식/김동철	최강진/정운술	윤수일/강덕필	황진성/최문실
설교본문	막 6:45-52	렘 49:7-22	렘 49:23-33	렘 49:34-39	렘 50:1-5	렘 50:6-10	렘 50:11-16

예배 담당 (7/30-8/3)

날짜	예배	설교	찬양
7/30 수요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 (렘 4:11-16) 김성관 목사	이희식	경진희
7/30 수요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렘 16:6-10) 박인기 목사	이광현	김영숙
8/1 금요일	김성관 목사	박용원	예루살렘 찬양대 / 풍물 김하은, 클라리넷 강성민 / 김은희 권사 가족
8/3 주일 I	별별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창 35:1-5) 이광현 목사	윤요한	임무천
8/3 주일 II	별별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창 35:1-5) 유재준 목사	강명규	박용규
8/3 주일 III	별별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창 35:1-5) 김성관 목사	경진호	김철환
8/3 주일 IV	별별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창 35:1-5) 윤수일 목사	장종신	장철환B
8/3 주일 V	별별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창 35:1-5) 탁정현 목사	유현철	김영은
8/3 주일장악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 (행 20:20-24) 김성관 목사	양재용	유재준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IV 오후 1:00(외국인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30 (젊은이 드리는 예배)	본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당
금요찬양집회	저녁 7:3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필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금요찬양	저녁 11:00	금요찬양회차 본당 앞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7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으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헝가리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호
유아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307호
초등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507호
중등 1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01호
중등 2부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중등 3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등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학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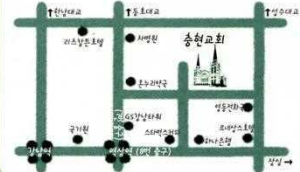
구분	시간	장소
청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청년 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청년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청년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청년 4부	오후 3:15	배다나 홀
사 랑 부	오전 11:00	복자전 지하1층
예배다부	오전 9:00(학생) 오후 1:00(학부)	제2교육관 1층
탁아부	(주) 오전 8:30~오후 6:00 (금) 저녁 7:00~제9:30	선교관 1층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배다나 홀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실	제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어린이교	주간교실	충현 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벨 홀

7월 충현 기도의 향

- 1. 교회의 방패와 삼각(창 15:1)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의 세계(요 18:36)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2. 위임목사님의 사명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모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 3. 모든 위임목사와 산하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회와 같은 교회야 16:18로 세워지라, 2008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 4. 모든 성도들이 한 열정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골 2:5)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5. 1·1·1 전도와 출세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6.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중언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7. 충현의 재능(주인·봉사·목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같이 열매 주신 중언 앞모임, 남몰래선 전집과 수양관 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8. 피떡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4, 6~10, 4)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장병이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본방 113호

교외 오시는 길



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부 목 사

박인기	이국근	안장덕	정진호	김익환
장 훈	이희식	하종철	안치현	장종신
양재용	이성진	이재영	김준호	윤수일
황진성	유재준	강명규	김철환	양재준
유현철	탁정현	김환수	최강진	최정훈
박용원	김영은	이광현	장종신	윤요한
김연향	박준옥	최진철	정민권	김창성
이재현				

■ 장 도 사 신심부

윤수일	김연성	홍순애	이우주	김민자
김정호	이복순	류보진	한성희	김정자
김영미	이복순	이복순	이복순	이복순
황순관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 전임지휘자 서순성 권원식
- 전임목장사 김순연
- 전임전도사 장원희 노은영
- 전 교 사 송현숙